입주기업 외국인 투자 비중 30%로 상향

평동·대불공단 활성화 막는다

영세 업체들 "10% 유지도 힘들다"

되레 경영난 가중…역외이탈 우려

영세한 지역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외국인 투자규정이 되레 기업들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거나 역외이탈을 부추기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외국인 산단 입주업체들의 경우 10%의 외국인 투자비중도 유지하기 버거운 형편인데 지난해부터 투자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아져 새 업체의 입주마저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시·전남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광주 평동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나 영암 대불 외국인산업단지 입주기업은 5천만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유치하거나 입주기업 자본금의 10% 이상까지 외국인 투자비중을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입주업체의 경영건전성과 외국인 투자촉진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자원부가 마련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이 증자 등을 통해 '몸집'을 불릴 경우 외국인 투자총액비중도 증자에 비례해 1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항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평동단지내 2천평의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해 생산설비 확장을 위해 증자했으나, 증자에 따른 외국인 추가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평동·하남산단 등을 노크하고 있지만, 이 조차 힘들 경우 경기도 등 타지역 이전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벌금' 형식으로 지불해야 할 임대료도 만만치 않다. 현재 평동단지 임대가격은 ㎡당 월 57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벌금'은 10배인 573원으로 상승한다. A업체가 6개월여의 유예기간내에 규정에 따른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연간 450만원의 10배인 4천500만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비중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4월 이후 입주기업부터 10%에서 30%(임대가는 ㎡당 57원에서 63원으로 인상)까지 높아져 영세한 지역기업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게 입주업체들의 주장이다.

대불단지 D업체 관계자는 "이 규정을 보고 국가산단에 입주하려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값싼 임대료를 제공했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비중을 이처럼 높이면 기존 업체들도 버티기 힘들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입주업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자부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동단지내 B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비중을 10%로 환원하되, 현재 50년으로 된 임대기간을 풀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업체들에게 분양해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동단지에는 54개 입주업체 중 51개가 가동 중이며, 대불단지에는 건설중인 18개를 포함해 4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고객 입맛 맞는 보험상품 공급 주효"

농협보험사업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본부 이끈

농협전남지역본부 최익주 팀장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보험상품을 공급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의료활동을 펼친 덕분입니다."

2007년 농협보험사업 평가에서 농협전남지역본부를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역본부로 이끈 최익주(50·사진) 공제보험팀장은 "특히 연중 무료 한방진료와 수지침 봉사활동은 물론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 등 풍토병 예방활동을 전개,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낸 성과"라고 말했다.

전남농협은 수수료 수익부문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6년보다 26억원이 순증한 708억원으로 목표의 113%를 달성,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2천509억원으로 2006년보다 206억원이 늘었으며 지난 2001년 783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6년간 무려 320.4%나 급신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전국적으로 실시한 신규 보장성보험 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보여 관내 60개 지역농협과 중앙회 사무소가 표창을 받았다.

최 팀장은 "앞으로 보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농촌지역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수수료 1천억원, 보장성보험료 3천억원, 총보험료 1조300억원을 기필코 달성해 7연 연속 전국 1위에 도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설 선물 배송 알바생 모집합니다"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등 지역 유통업체

광주지역 유통업체들이 설을 앞두고 선물배송에 필요한 아르바이트 인력들을 줄줄이 채용한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7일부터 오는 2월9일까지 59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한다. 이들은 모집시기에 따라 상품 진열·정리·배송·접수·포장·운반·배달파트에서 일하게 된다.

또 신세계 이마트도 검품, 포장배달 등 업무로 57명을 모집한다. 급여는 하루 8~9시간 근무에 4만~4만5천원 선이다. 아르바이트 신청은 ㈜하나휴먼링크(360-1058)로 문의하면 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12일 동안 설 특별배송기간으로 정해 30여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이중 신속배송 3명, 식품 레드캡 5명, 상품권 포장 2명, 리콜요원20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급여의 경우 배송은 4만5천원, 상품권 포장과 레드캡은 4만원을 지급하며, 식사는 백화점에서 제공한다. 문의전화는 221-0322~3.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5일부터 2월6일까지 설명절 행사지원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

채용인원은 50여명 수준으로, 선물상품 배송·접수 및 해피콜·상품권 포장 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급여는 3만4천원부터 직무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문의 510-8013.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위장 간이과세' 2만5천명 관리 강화

광주국세청, 성실 신고 유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정민)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위장 간이과세자 2만5천58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광주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월2~25일)을 맞아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해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관리 대상자들에게 추정 수입금액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탈루혐의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관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의 기준금액을 많이 초과하지만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5천207명, 임차료·인건비·전기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천590명이다.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1만8천261명도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우수 향토특산물 모음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구수회)은 14~20일 '우수 향토특산물 모음전'을 열어 젓갈·진쌀강정·당귀 등 지역 특산물을 값싸게 판매하고 있다. 〈롯데광주점 제공〉

동전 100개 중 91개는 '낮잠'

광주·전남지역 가정 저금통·서랍에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행된 동전 100개 가운데 91개 이상은 각 가정의 저금통이나 서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동전 환수율은 8.6%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12.2%)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지역에 공급된 동전 100개 가운데 91개가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 방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광주·전남은 지난해 116억원의 동전이 공급됐으나 환수된 양은 10억원에 그쳐 동전 유통 부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화폐는 지난해 공급된 2조6천332억원 가운데 2조6천292억원이 환수돼 99.8%의 환수율을 나타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화폐 환수율이 낮으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부족해 다시 돈을 찍어내야 한다"며 "동전의 경우 각 가정의 저금통이나 서랍 등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유통 부족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보해 새해 사자성어

'일취월장'

2008년 새해 소망을 담은 사자성어 1위는 무엇일까?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지난해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해 각오, 소망을 담아 사자성어(四字成語)로 표현한다면?'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일취월장(日就月將)'이 1위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취월장'이라고 입력한 비중이 7.8%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만사형통(萬事亨通)'이 5.0%로 2위를, '고진감래(苦盡甘來)'가 4.6%로 3위를 차지했다. /이종태기자 jtlee@

농협광주본부 보험사업단 치평동 이전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 직할 광주보험사업단이 14일 광산구 우산동 광주지역본부 건물에서 서구 치평동 화신빌딩 6층으로 확장 이전해 개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사진〉

농협광주지역본부 보험사업단은 지난해 총 보험료 2천200억원을 기록해 7대 시 지역본부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농협보험 빅3 진입과 3천억원 수신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중기청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사업' 시행

중소기업청은 해외에 진출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사업을 컨설팅해주는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은 기존 75개 민간 센터 중 실적이 나쁜 17개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 북미와 동구권 등 중소기업의 수출이 유망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22개 센터를 지정해 해외 민간거점을 80개로 확대했다.

지원분야는 수출·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 협력파트너 발굴, 계약체결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신청은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다음달 12일까지 접수한다"며 "심사를 거쳐 3월에 사업 대상 업체 250여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